

# 오피니언

## 데스크시각

최재호



4·11 총선 후 연말 대통령 선거까지 기업들은 어떠한 경영활동을 할 것인가, 아마도 '시계 0'의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아닐까 여겨진다.

민중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출자총액 제한제 제도인,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선거 전에 내세웠다. 통합진보당은 대기업 '재벌 규제법'을 만들어 기업을 3000개 전문기업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 진보당 모두 당 차원에서는 '기업 패러기'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삼성그룹, 포스코, 롯데그룹, 신세계, 금호타이어 등 구체적인 기업명을 거론하며 '기업유치'에 나섰던 게 사실이다. 그야말로 '친기업' 노선이다.

### 정서와 실리 공존하도록

국민의 관심이 온통 일자리와 성장에 쏠려 있고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총론은 '재벌 해체'지만 각론은 '기업 끌어들이기'로 환심을 사는 이중 전략인 셈이다.

물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기업 제재는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 자체를 인수분해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자유경제체제하에서 논리에 맞지 않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제빵 분야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면서 프랜차이즈

## 대기업의 공(功) 그리고 과(過)

1위 기업인 파리바게뜨가 속살이를 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창업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반적인 식품위생 수준을 높인 공(功)은 있지만 가맹점주들에게 횡포를 일삼은 '탐욕집단'으로 비춰지며 과(過)만 강조되고 있다.

국내 특정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1~2위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틈을 타 다른 외국계 중위업체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마트도 월마트와 까르푸라는 해외 유통업체의 공습에 초토화 될 것이라는 국내 유통시장에 토종 유통기업들이 방어

해냈고, 국내 물가를 낮추고 낙후했던 국내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동반성장과는 거리가 먼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기업의 이미지로 전락했다.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휴업에 들어갔지만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의 이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이득이 없고 대형마트는 매출이 줄어 들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이 역시 공(功)과 과(過)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광주종합터미널 부지

내에 있는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의 옹도문 제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금호터미널은 최근 광주시에 광주신세계 1층 1만3000여㎡의 옹도를 상업시설로 바꿔달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냈다. 금호 측은 버스 이용객 감소로 터미널사업자의 주 수입원인 매표수로 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수치 악화와 금호터미널이 속해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어 시설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광주신세계 백화점도 1층이 상업지구로 바뀐다면 기존에 있는 갤러리와 시민

휴식 공간을 유지하면서 고객 수요를 분석해 일부 명품을 들여오는 등 매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측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지역 VIP고객의 역외유출이 오는 2014년 KTX 개통에 따라 더욱 가속화돼 매출 감소와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 광주시 균형추 역할해야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민 편의시설로 사용되던 곳을 상업시설로 바꾸는 계획에 부정적이며, 광주시는 교통난과 자칫 대기업을 옹호한다는 지역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회의적이다.

이에 신세계 측은 지난 17년 동안 터미널시설을 이용해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상업시설로 변경될 경우 기업의 지역사회적 공헌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1등인 기업이 남용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시장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기업활동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으로 질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균형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부장〉lion@kwangju.co.kr

## 은편칼럼



최영태

지난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모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부산에서 민주당 깃발을 달고 3선을 하게 된 조경태 의원과 광주에서 비록 낙선은 했지만 선전한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에 관심이 갔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4·11총선에 당선됨으로써 부산에서 연속 3선을 하게 되었다. 부산에 출마한 문재인, 문성근 등 전국적 인물에 가려 인연의 큰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조경태 의원의 3선은 놀라운 기록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부산에서 이루게 되었을까? 그 이유와 배경이 무척 궁금했다.

## 호남 민주당 의원들, 조경태·이정현에 배워라

조경태 의원의 성공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하나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 "상식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의 정치 철학이었다. 그러나 연속적인 당선은 노무현이라는 상표 외에 추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것은 곧 주민들에 밀착해 민생을 돌보는 의정활동이었다. 그는 국·사비 720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도시철도 2대선의 건설 등 지역개발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수행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의 정치에는 이념과 민생이 함께하고 있었다.

광주 서구에 출마한 이정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40%대의 득표율을 올렸다. 새누리당(한나라당) 후보들이 이 지역에서 10%대의 득표율을 올린 선전했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놀라운 성적이 아닐 수 없다. '군사독재 세력의 계승 정당 후보인데-', '민주진영의 의회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진보당 후보도 한 명쯤 당선시켜주어야 하는데-' 등의 생각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그를 지지하면서도 투표장에서는 다른 후

보에게 투표한 사람이 꽤 많았을 것이다. 이정현 의원의 성적표는 민주당이 30% 이상의 기본 득표율을 유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당선된 부산의 조경태 의원보다 더 화려하게 보인다.

이정현 의원이 광주에서 성공한 것은 그가 광주·전남지역에 쏟은 정성 때문이다. 혹자는 국회의원이 국가적 사안에 정진해야 지 지역구 사업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그의 역할을 폄하할지 모르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1960년 전체 인구의 23.8%를 차지했던 호남지역 인구가 2010년에는 10.5%로 줄어들었다. 한국 사회의 모순 중에 지역 간의 불균형 성장보다 더 큰 모순이 있을까? 지방이 산다는 이유로, 혹은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나 민주적 사회가 아니다. 낙후된 이 지역을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기고



김태규

여주시민들이 지난 15년 동안 꿈꾸고 노력해 왔던 2012여수엑스포가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바치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세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망설이기도 하고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막연히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엑스포는 지구촌 축제다. 그것도 엄연히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은 엑스포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치하고, 정부가 국가계획으로 여수에서 치르는 행사다. 이렇게 큰 축제를 놓고 손님이 많이 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축제는 뭉치 뭉치 해도 와서 가까이 즐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적어도 절반은 성공하는 법. 손님 없는 축제는 이미 실패한 축제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축제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여주시

## 여수엑스포는 여주시민의 힘으로

민이다. 안방에서 손님을 맞는 사람들이 바로 여주시민이기 때문이다. 여주시민들은 명확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마음가짐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람객들은 여주시민들이 치러야 할 손님이다.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철저한 서비스 정신이 필요한 이유이다. 양보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려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차량통행의 편리함, 서비스업소의 우선 이용 등 모든 면에서 주인이 먼저 차지하고 이익을 누리려면 손님을 당연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이번 박람회기간에 아마 여수에서 세계박람회를 다시 개최하기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현재일부의 기회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이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손님을 모셔놓고 주인이 먼저 발상을 차지하고, 지역실정을 잘 모른다고 괘시한다면 어디 주인 된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인이 솔선 수범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손님이 감동하고, 후시 있을 작은 불편을 찾아주고, 언젠가는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번 한번으로 끝나고 다시는 여수를 돌

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면, 더구나 돌아가서 여수를 흥분다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엑스포는 지금 치르지만 우리는 엑스포 이후까지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당장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일을 그만둔다면 '세계 4대 미항',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수도'의 꿈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당 해야 할 일들이 있다. 후시 있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잡아야 할 일이다.

첫째, 도로사정은 언제나 우리 여수의 아리리리 특성상 아주 원활한 도로 소통은 어렵다. 그러나 엑스포 기간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자카운 안 타기'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카운 안 타기에 더해 교통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무질서한 교통문화를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 교통질서에 둔감하여 사고라도 내면 그때 막히는 도로는 더욱 스트레스다. 자가용을 수십 대, 수백 대 안타고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수세계박람회지원단장〉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단순한 지역적 주제가 아니라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평가해 주어야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야당이기에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 지역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그래서 지역민들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대변자라고 평가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뿐만인가?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했다는데, 지금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에 과연 호남 지역과 운명적 관계를 갖고 있는 세계적 인물 'DJ의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와 정권교체를 역설하려면 먼저 이 지역 민들의 꿈과 아픔을 뱉속까지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조경태 의원과 이정현 의원에게서 많이 배워야 한다. 〈전남대 교수·역사학〉

## 시설

## 늘어만 가는 학업중단 이대로 둘 건가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이에 못지않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정형편 등 여러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극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김선호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업중단 고교생수는 지난 2009년 1370명에서 지난해 1432명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학생의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 학업중단율 1.9%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광주지역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도 지난 2008년 296명에서 지난 2010년 345명으로 늘어났다.

사유별로는 학교 부적응이 5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형편 등 가사 336명, 질병 75명, 품행 20명, 기타 458명 등으로 집계됐다. 학교 부적응은 학교폭력 및 성적 부진 등과 무관치 않다.

## 안이한 행정이 부른 우치공원사업 표류

호남 유일의 종합놀이공원인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명품화사업'이 장기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왔던 이 사업이 3년째 제자리 걸음인데다 민간투자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금호리조트 측이 최근 사업 보완 요구에 대해 사실상 포기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11년 6월 금호와의 패밀리랜드 운영협약 만료를 앞두고 2010년 7월 TF팀을 구성해 우치공원 명품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금호리조트가 회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투자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철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광주시가 금호의 사업제안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재원 조달 계획 등에서 부적절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새로운 제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금호 측이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이다.

광주시는 최초 제안자 공모시 6개 사

가 참여했던 사실을 들어 민간투자사업자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조건을 최대한 개선해 조만간 민간투자사업자를 공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 굴지의 기업인 금호 측이 물러난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지의 문이여 자칫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치공원 사업이 이렇게 걸도는데는 무엇보다 광주시의 안이한 행정 탓에 있다. 금호 측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데 1년이나 소요되고, 이미 부적절 판정이 내려진 제안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는 얘기가. 금호의 워크아웃은 이미 2009년 12월 이뤄져 광주시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광주시는 우치공원이 호남 유일의 종합놀이공원으로 장기적 비전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명품화를 이뤄내야 한다. 더 이상의 방지는 안 된다.

## 無等鼓

장자(莊子)가 복수 기슭에서 닭이 울을 하고 있었다. 초(楚)나라 왕이 두 대신을 보내 정치를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하게 했다. 이에 장자가 말했다. "초나라에서는 삼천 년 전에 죽은 신령스러운 거북의 껍데기를 비단 삼자에 넣어 사당에 모셔놓고 받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거북이 살았을 때, 죽어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뼈가 되기를 원했겠는가?"

두 대신은 서로 얼 굴만 바라보다 말했다. "차라리 진흙 속에 찌르려 끌며 살아있기를 바라겠지요?" 장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만 돌아가 주시오. 나도 진흙 속에서 찌르려 끌며 살겠소."

장자 추수(秋水)편에 나오는 일화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건데,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으로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장자의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고 비장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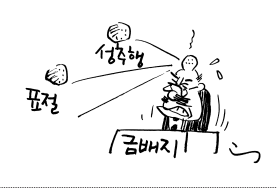
최근 스웨덴 올살라대학 연구팀이 지난 300여년간 발생한 침몰사고 18건을 분석한 결과 '배가 침몰해 승조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여성과 어린이보다는 자기 목숨부터 구하고 본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1852년 침몰한 HMS버켄헤드호의 경우 생존자 191명 중 여성은 단 7명이었으며, 1854년 침몰한 미국 SS아르틱호는 생존자 41명

대부분 승조원으로 여성과 어린이는 전원 숨졌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온갖 불법 예외 처벌까지도 감수하는 것이 현실일 수 있다는 얘기가.

최근 정치권의 행태도 다르지 않다.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고, 제수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속시원히 해명하지도 못하면서 의원직은 유지하고 싶어하는 일부 정치인의 작태를 어떻게 봐야할까. 자존심이나 명예쯤은 내팽개쳐더라도 의원직은 갖고 싶다는 건데, 진흙 속 거북이가 뭐라 할까 궁금하다.

／홍성기 정치부 차장redplane@kwangju.co.kr



## 택시 비상방법등 깜빡이면 112에 신고해 줍시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살인·강도 등 강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자위방범체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는 영업용택시차량에는 비상방법 등이 없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업용택시에는 비상방법등이 설치되어 있다. 택시기사가 택시

강도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위치를 켜면 택시 지붕 위 캡 안에 부착된 붉은 표시등이 5초 정도 간격으로 깜빡거리면서 외부에 비상 상황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스위치는 택시마다 위치가 다르지만 주로 운전석과 가까운 핸들 바로 밑 부분이나 트렁크를 여는 버튼 옆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택시비상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비상등이 점멸되더라도 그냥 지나친다. 실제 경찰이 택시 비상방법등을 견제 체도의 훈련을 했는데도 이를 알아보는 시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택시 기사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도입된 비상등이 홍보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택시 비상방법등을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각종 범죄로부

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범인 검거도 가능하다. 택시 관련 범죄 예방에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애가게 기다리며 비상방법등을 켜고 운행 중인 영업용택시가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갈지도 모른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비상등 점멸시 112신고해 하도록 관심 및 대대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하겠다.

▲김양식·광주시 서구 동읍동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논설주간 申滄樂                           |                     |
|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                | 광주광역시 동구 남평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내<br><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회보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2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정경부 2200-612                               | 체육팀 2200-697   | 광고이케팅국 222-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대표 FAX 222-4918>                          | 사진부 2200-693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사회부 2200-616                               | 조사부 2200-571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267>                          | 전산부 2200-685   | 기획사업국 2200-555                     |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